



남원소방서, 부처님오신 날 대비 사찰 안전컨설팅

남원소방서가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의 안전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박덕규 서장 및 관계자들은 관내 전통사찰인 실상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의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0건으로 7명이 다쳤고 약 45억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0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화재 시 현장 접근이 어렵고 산림과 인접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찰의 불축행사에 따른 연등설치와 밤샘기도 등으로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진행한 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마을이장단 화재 예방 문자서비스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17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순창군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마을 이장단 문자서비스는 순창소방서의 특수사색으로 매년 주택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와 함께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동참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문자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주택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 ▲불나면 대피 먼저 ▲119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초기 화재 대응요령 ▲응급처치·심폐소생법 ▲생활 속 안전수칙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안전보행·안전운전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김태호)는 17일 시내 일원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행 및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교통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노인보행자에게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 및 무단횡단 금지를 교육하였으며, 운전자에게는 4월부터 전국 시행된 '안전속도 5000' 제도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태호 서장은 "보행자는 안전보행, 운전자는 안전운행 시 안전한 남원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5월 어버이 달' 열녀 현판·제막 봉행

사신문화제전위원회, 남원 양씨 재도 부인

1800년대 열녀(烈女) 전주 이씨에 대한 조정(중앙정부)의 포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후손에 의해 알려져 화제를 낳고 있다.

사신문화제전위원회는 14일 열녀 전주 이씨 효열비각에서 전주 이씨 5대 손인 양영두 위원장에 의해 현판을 제막하는 의식이 봉행됐다.

효열 비각은 후손인 고양창석 선생이 생전 시 세웠고 단청은 2010년에 완성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1869년 당시 하북면(下北面)(지금의 임실군 관촌면, 진안군 성수면, 완주군 상관면 일대)에 거주하는 최주하 등 33인이 성주에게 청원을 내고 하회촌(회봉리) 거주 전주 이씨를 포상에 달라고 청원한 다.

상서 기록에 부인 이 씨(당시 69세)는 남원 양공재도의 아내인데 32세 때에 딸 셋이 있고 임신 상태였는데, 당시 36세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행히 유복자가 아들(하권)로 이어져 대(代)를 잇게 되고 시어머님을 극진히 섬기고 봉양하고 자식 양육을 엄하게 하여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이후, 1870년 임실의 유생(儒生) 오홍수 등 11인이 전



리관찰사에게 상소해 조정(중앙정부)에 포장 상신해 줄 것을 재문을 만들어 청원했고, 조정(중앙정부)은 포상을 결정했다.

현판은 계남 송기상 선생이 쓰고, 무형문화재인 명장 김종연 선생이 서각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진봉면 불법투기 예방 양심화단 조성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17일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양심화단을 설치했다.

양심화단은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동시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인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성된 양심화단 위치는 올해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개통과 맞물려 진봉면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이용객 증가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어느 때보다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빈번해져 청소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금번 조치로 다소나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투기신고 주민홍보 및 올바른 분리수거 교육으로 주민들 의식 전환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오승영 진봉면장은 "이번 양심화단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환경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봉면민의 특색있는 꽃길조성에도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진안군 주천면, 착한가게 4개소 착한가정 1개소 현판 전달식

진안군 주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명수, 공동위원장 김사훈)는 17일 착한가게 4개소와 착한가정 1개소에 대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가게는 4개소가 동시에 탄생해 더욱 이목을 끌었다. 착한가게 참여 업체는 대보건설(대표 안진규), 운일암송어회집(대표 이호선), 만나식당(대표 임태형), 무진장조은에견(대표 김동주)등으로 매월 3만원씩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나눔의 가치 실현 약정을 실시했다. 또한 '착한가정'으로는 김연화 부부가 매월 2만원씩 기부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김사훈 면장은 "행복한 주천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며 "따스한 온기가 주천면에 가득하도록 함께해 주시는 주천면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 이상원 개발청 락국 기반시설과장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해 제로화를 위해 자연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4일 '산사태 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은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유지되며, 장마철 풍수에 산사태 자연재난 상황에 맞게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대응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건전 직장 문화 조성 형량 동아리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민중석)는 17일 오전 경찰서 2층 소 회 의실에서 형량 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2021 반디풀 청명 동아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역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음주를 동반한 야간 회식 자제, "불요 불급한 모임 보류"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 준수를 결의하는 한편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고 비난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1 진안군 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 개최

진안군은 지난 15일 진안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한효임)에서 2021년 진안군 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을 가졌다.

진안군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들이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15명)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에 참여 자문 및 평가하며 청소년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18명)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나혜수 부군수, 정옥주 군의원, 김홍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올해 새롭게 위촉된 청소년참여위원회 김대현(미령고 2) 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오수빈(미령고 3)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